2026년 7월호(통권 134호)

상교우서 上教友書

수원교회사연구소

발행일 2026.6.20 **주소**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99(망월동) **전화** 031 792 8541 **홈페이지** http://www.cask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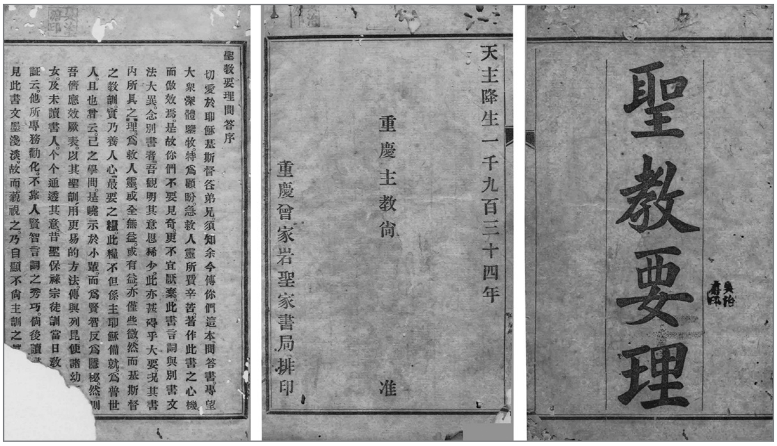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비(非)공식 교리문답서, 『셩교요리』 필사본을 다시 들여다보다 (5)

- 번역 저본인 한문 교리문답서 『聖教要理』에 대한 내용 보완·정리와 관련 연구 논문 소개 -

필사본 『셩교요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소개하는 ‘콜로키움’[학술 토론회]이 지난 5월 15일 한국교회사연구소에 개최되었고, 필자는 ‘윤봉문 후손 기증본’ 필사본을 소개한 김유진 수녀님과 함께 발표자로 참석했습니다. 발표 시간을 통해 필자는 ‘윤봉문 후손 기증본’ 필사본이 『셩교요리』(또는 『聖教要理大問答』)라는 제목의 교리문답서와 같은 내용의 책이고, 『셩교요리』 필사본의 번역 저본이 중국에서 간행된 한문본 『聖教要理』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필자가 직접 확인한 『셩교요리』 필사본 13종과 목록으로는 파악했으나 직접 확인하지 못한 3종 등 16종 서적의 서지 사항을 도표로 작성하여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월호부터 6월호까지 4회에 걸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한문본 『聖教要理』는 『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鐘鳴旦·杜鼎克·蒙曦 主編, 台北市: 台北利氏學社, 2009.9, 영인본 전26책) 중 제24책(171번, 383~488쪽)[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분류번호 Chinois-7246]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문본을 찾는 과정을 지난 4월호에 서술했는데, 지면 관계상 1934년 중국 중경(重慶)에서 간행된 『聖教要理』 관련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대신 5월 15일 발표에서는 1934년판 『聖教要理』가 한글 필사본의 번역 저본은 아니지만 『聖教要理』[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에서 개정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1934년 중경에서 간행된 한문 교리문답서 『聖教要理』의 속표지, 판권, 서문 (오른쪽부터)

이후 필자는 5월 15일 ‘콜로키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이건주 수녀님이 『셩교요리』와 관련된 논문[金成根, 『日·中·韓におけるカテキズムの受容と變遷−3国におけるカテキズムの比較を中心に−』, 長崎純心大學 人間文化研究科 박사학위논문, 2020]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성근(金成根)의 나가사키[長崎]

쥰신[純心]대학 박사학위논문은 한·중·일 천주교회에서 교리[문답]서가 어떻게 수용되고 변천되었는지를 3국의 교리[문답]서를 비교함으로써 밝히는 글인데, 『성교요리』 한문본과 한글 필사본[『셩교요리』(大問答)]도 다루고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김성근 논문을 제공해주신 이건주 수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서는 한문 교리문답서 『聖教要理』에 대해 김성근의 박사논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과 필자가 이전에 정리한 내용을 비교하여 보완·수정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문본 『聖教要理』 1934년판과 간행연도 미상의 『聖教要理』(Chinois-7246) 비교

필자는 지난 4월호 지면과 5월 15일 콜로키움 발표를 통해, 예수회 소속 선교사제 로벨리(Lobelli, 1610~1683, 陸安德)가 저술한 한문본 『聖教要理』가 『셩교요리』(大問答)의 번역 저본이라는 기존 통설[『셩교요리문답·진교졀요·셩교요리·셩교빅문답』(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영인·간행)의 '해제'(7쪽)]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로벨리 신부가 저술한 『聖教要理』를 홍콩교구 아카이브[https://archives.catholic.org.hk/]에서 확인했는데, 문답식이 아니라 주요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의 교리서였기 때문에 『셩교요리』(大問答)의 번역 저본일 수가 없습니다.

필자는 로벨리 신부가 저술한 『聖教問答指掌』[프랑스 국립도서관(BnF) 소장, Chinois-7007]도 확인했는데, 서문도 없고 문답의 내용과 편제도 『셩교요리』(大問答)와 달랐습니다.

쿠랑(Courant, 1865~1935)이 저술한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3권 텬쥬교류 '2697. 聖教要理 셩교요리'(1897년, 285~286쪽)에는 루즈몽(Rougemont, 魯日滿, 1624~1676, 예수회) 신부가 간행한 『天主聖教要理』의 번역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필자는 루즈몽 신부의 『天主聖教要理』를 확인하기 위해 천주교 관련 사이트에서 검색했지만, 해당 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벨리 신부의 『聖教要理』는 『셩교요리』의 번역 저본이 아니었고, 쿠랑이 번역 저본이라고 추정한 루즈몽 신부의 『天主聖教要理』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는 계속해서 '聖教要理'라는 제목의 책['천주성교요리'나 '요리문답'이 제목에 들어간 책들도 포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聖教要理』라는 책을 'Wikimedia Commons' 사이트 자료[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SID-13634259_%E8%81%96%E6%95%99%E8%A6%81%E7%90%86_%E7%AB%A01-4.pdf]에서 찾았습니다. 그 파일[SSID-13634259_聖教要理_章1-4.pdf]을 다운로드해서 한글 필사본 『셩교요리』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切愛於耶穌基斯督列弟兄 須知"로 시작되는 한문본 서문[聖教要理序]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졀이 ᄉ랑ᄒ시ᄂ 모든 뎨형은 맛당이 알지니"로 시작하는 '셩교요리셔'와 거의 대부분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필사본의 번역 저본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본문의 편제, 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일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한문본이 바로 필사본의 번역 저본은 아니고, 번역 저본이 되는 한문본의 다른 편집본[개정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한문본 『聖教要理』는 필자 미상으로 나오며, 1934년에 중국 중경(重慶)대목구장 상(尙) 주교의 감준을 받아 중경 증가암(曾家岩) 성가서국(聖家書局)에 간행한 책자로 서(序) 1장과 본문 5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답 개수는 모두 578개입니다. 뒤의 번역 저본인 한문본과 비교했을 때 장 구성이 복잡해졌고 문답 수도 늘어났으며, 내용상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도 후대이기 때문에 번역 저본인 한문본이 수정·보완된 개정판으로 파악했습니다. [*상(尙)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장첸(Jantzen, 尙惟善, 1885~1953) 주교입니다. 그는 1925~1946년까지 중경대목구장, 1946~1950년까지 중경대교구장을 역임했습니다.]

필자는 다시 번역 저본이 되는 한문본을 검색하던 중 『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鐘鳴旦·杜鼎克·蒙曦 主編, 台北市: 台北利氏學社, 2009.9, 영인본 전26책)에 실린 『聖教要理』(제24책, 383~488쪽)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 필사본의 서문, 편제[소제목], 문답 내용과 비교해 보았는데, 소인(小引, 서문)

2장과 본문 49장[533개 문답]으로 구성된 한문본이 『셩교요리』(大問答) 필사본의 번역 저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중에 한국교회사연구소를 방문하여 『셩교요리』(大問答) 필사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의 한문본과 동일한 판본을 발견했습니다. 분류번호 '고 000.1 성20가'인 『聖敎要理 單』이라는 책인데, 그 목록에서는 '육안덕', 즉 로벨리(Lobelli, 陸安德) 신부가 저자로 나오며, 이는 영인본 해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로벨리 신부의 저서라는 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문본 『聖敎要理』는 '파리외방전교회 계열의 교리문답서'이다 - 김성근의 박사논문

필자는 위와 같이 『聖敎要理』 1934년판과 『셩교요리』(大問答)의 번역 저본인 『聖敎要理』(Chinois-7246)을 비교해서 5월 15일 콜로키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후 김성근의 박사논문을 통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필자가 추론하고 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근은 한·중·일에서 편찬·사용되었던 교리[문답]서를 예수회 계열과 파리외방전교회 계열로 구분하여 각 계열 교리[문답]서의 수용과 변천 과정을 정리했는데, 『셩교요리』(大問答)의 번역 저본인 『聖敎要理』가 파리외방전교회 계열에서 편찬되고 사용된 교리문답서라고 밝혔습니다. 파리외방전교회 관할 중경대목구에서 간행된 1934년 『聖敎要理』가 『聖敎要理』(Chinois-7246)의 개정판일 것이라는 필자의 추론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 김성근의 논문에서는 한국천주교회에서 공식 교리서로 사용되었던 『셩교요리문답』(1861년 간행)이 예수회 계열에서 편찬된 교리문답서를 편역한 것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셩교요리문답』의 한문 저본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조현범 논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조현범, 「한글본 『성교요리문답』의 한문 저본 연구」, 『교회사학』 19, 2021.]

김성근은 같은 이름을 가진 『聖敎要理』 서적들을 검토했는데, 로벨리 신부의 『문답지장(問答指掌)』과 『성교요리(聖教要理)』는 『聖敎要理』[『셩교요리』(大問答)의 번역 저본]가 아니며, 루즈몽 신부의 『성교요리(聖教要理)』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김성근의 논지와 필자가 앞서 추론했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성근의 논문에 의하면, 파리외방전교회 계열 교리문답서의 원형은 1702년부터 사천(四川)에서 전교 활동을 했던 바세(Basset, 白日昇, 1662~1707) 신부가 저술한 『천주성교요리문답(天主聖教要理問答)』입니다. 간행 연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바세 신부가 활동하던 시기[1689년 중국 입국~1707년 사망]로 추정했습니다. 내용을 비교해 보면, 『聖敎要理』(Chinois-7246)가 『천주성교요리문답』의 일부분 내용을 이어받고 있다고 합니다.

『聖敎要理』(Chinois-7246)에는 저자와 간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사와 혼인에 관한 가르침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성근은 1803년 사천 시노두스에서 정해진 사항[결정 사항은 1822년 교황청 포교성 인쇄소에서 간행됨]이 『聖敎要理』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고 추론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일본판 번역서[『성교요리문답(聖教要理問答)』]가 1865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에 『聖敎要理』의 간행 연도는 사천 시노두스의 내용이 교황청의 승인을 얻은 1822년부터 일본판 『성교요리문답』이 간행된 1865년[간행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1864년]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근은 『聖敎要理』(Chinois-7246)에 대해 프랑스국립도서관(BnF)과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2개 서적만 확인된다고 파악했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김성근이 『聖敎要理』

를 파리외방전교회 계열 교리문답서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한 책이 1919년에 간행된 『성교요리(聖敎要理)』입니다.

김성근의 논문에 의하면, 나가사키 쥰신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1919년판 『聖敎要理』는 서문이 1장, 본문은 56장, 문답 57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행 연도는 '천주강생(天主降生) 일천구백일십구(壹千玖百壹拾玖)'로, 간행 인준 책임자는 '사천(四川) 천동주교(川東主敎) 서약슬(舒若瑟)'로, 간행 장소는 '중경(重慶) 증가암(曾家巖) 성가서국(聖家書局)'으로 나옵니다.

1919년판의 서문은 『聖敎要理』(Chinois-7246)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별도로 '주의(注意)'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주의'에는 선통(宣統) 원년(1910년)에 열린 주교 회의에서 『聖敎要理』의 수정과 각 항목을 보완할 것을 결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1910년 이전부터 『聖敎要理』가 사천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으며, 1919년판은 1910년 이전 사천에서 사용된 『聖敎要理』의 개정판임이 명백합니다.

필자는 1919년판 『聖敎要理』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1934년판 『聖敎要理』와 간행 장소, 편제[서장, 본문, 문답 수]가 동일하며, 1934년판에는 '주의'가 따로 없지만 1919년판보다 뒤에 나온 간행본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934년에 인준한 중경대목구장 장첸(Jantzen, 尙) 주교는 1919년판 인준자인 천동대목구장 슈블롱(Chouvellon, 舒福隆, 1849~1924) 요셉[若瑟] 주교의 다음 계승자였습니다.[*'천동대목구'는 1924년 12월 '중경대목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910년 주교 회의를 통해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편찬한 『聖敎要理』(Chinois-7246)의 수정이 결정되고 1919년 그 개정판이 나왔으며, 1934년에 개정판이 중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 김성근의 논문에 의하면, 파리외방전교회에서 편찬·사용된 『聖敎要理』는 일본으로 수용되어 1865년경 요코하마에서 무니쿠(Mounicou, 1825~1871) 신부가 번역한 『성교요리문답(聖敎要理問答)』으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일본에서 2권만이 현존하는데 2011년 복간판이 출판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일본판 『聖敎要理問答』은 서문이 없고 본문 53장, 문답 44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판 『聖敎要理』의 내용 중 일부가 일본 교회의 사정에 맞게 생략되어 편집된 것입니다.

[한글 필사본 『성교요리』 추가 확인]

박사논문에서 김성근은 한글 필사본[『셩교요리』(大問答)]을 비교·분석했는데,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소장된 서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목록으로만 확인한 서책, 즉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과 [절두산] 한국천주교 순교자박물관, 천호성지에 소장된 『셩교요리』를 소개했습니다. 그중 천호성지 소장 서책은 현재 호남교회사연구소 소장 서적[『성교요리 언해』(1898년 필사)]이며, 필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로욜라도서관과 절두산 박물관 소장 도서는 직접 보지 못하고 도서목록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로욜라도서관 소장 『셩교요리셔』[광무6년 임인(壬寅, 1902) 김희두 베드로(伯多金熙斗) 필사(騰筆)], 「절두산순교성지 소장 고문서 목록」(2003년 서종태 작성)의 '『성교요리서』 필사본, 한글, 2종'] 따라서 이전까지 확인한 한글 필사본 16종 목록에 3종[로욜라도서관 1종, 절두산 박물관 2종]을 더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현존하는 한글 필사본 『셩교요리』(大問答)는 19종[목록만 확인한 6종 포함]이 됩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 (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 1·2차)과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